

21세기 중국문학연구의 전환과 고민

- 白先勇소설을 통해 본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高慧琳*

<목 차>

1. 문화담론의 유행과 소설 독법의 신경향
2. 문화적 접근의 기초단계
 - 1) 중국문학의 세계화인가
 - 2) 미국의 중국문학과 白先勇
3. 白先勇 소설의 두 가지 접근
 - 1) 모더니즘적 읽기와 접근
 - 2) 문화연구를 통한 접근
4. 소결: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1. 문화 담론의 유행과 소설 독법의 신경향

우리가 흔히 ‘중국문화’라고 부를 때, 좁은 의미로는 중국의 음식문화, 의복 문화, 주거문화 등의 가시적인 것을 다룰 수도 있고, 청소년 문화, 대중문화, 고급문화, 소비문화 등처럼 추상적이고도 비가시적인 것을 다룰 수도 있다. ‘문화’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주제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 다시 연구자와 독자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삶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에 이름 붙일 수 있는 ‘문화’의 의미로서는 아마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일 터이나 이런 문화연구의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생각처럼 수월하지 않다. 종전의 문학읽기와 연구가 문화읽기와 연구로 패러다임

www.kci.go.kr

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 데는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문학에 대해 역사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부여된 지위는 해체 혹은 재해석되었으며 기존에 있어 왔던 ‘문화’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된 시점에 이르렀다. 포스트 모던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이데올로기 주도 세력권과 비주도 세력권을 ‘중심’과 ‘주변’으로 이분하던 시대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심이 중심으로서 역할하고 작용하는 것과 주변이 주변으로서 중심과 균형을 맞추면서 존재하는데 대해서, 그 지형도를 다시 그려야 할 필요성의 대두와 더불어 학계의 다양한 관심과 연구를 촉발한 것도 사실이다. 문학의 정전화와 고급문화/ 대중문화의 이분법도 이러한 ‘중심’과 ‘주변’으로 대표되는 탈이데올로기적 논법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재논의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문학을 위해 주도되었던 모더니즘적 읽기에도 일단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다. 모더니즘적 읽기는 텍스트가 모든 것을 의미하여 언어의 모든 객관적 양상들은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그것과의 결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학대상을 해체하고 문학적 가치를 다시금 되짚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을 모더니즘적 읽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소설 속 주인공들 간의 대화와 줄거리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작품의 배경 및 작가 연구를 위주로 분석을 시도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리고 이로써 창출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사실 이것은 작품 자체보다도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을 탐구하는 것은 주된 관심사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중문학계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1980년대부터 발표된 국내 중국문학 석·박사 학위논문 제목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¹⁾ 1980, 90년대 중반까지는 대개의 논문들이 ‘인물 연구’, ‘작품 분석’, ‘주제의식 연구’, ‘문학관 연구’, ‘이론 연구’ 등의 제목으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문화와의 접목 및 문화적 재해석과 연계하여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모더니즘적 읽기를 벗어난다는 측면과 문화연구로 나아가는 페르다임의 전환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여겨진다.

1) 국내 중국문학 석박사학위논문 목록 (김혜준, <http://home.pusan.ac.kr/~dodami>, 2005.6.17).

본고에서는 주로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의 세계적인 흐름과 중국 내에서의 각성이 중국문학 연구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살피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말하자면 세계로 나아가는 중국문학, 혹은 세계 중국문학의 측면에서 신분적, 지리적 요건을 비교적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 작가로 白先勇을 살펴보고자 한다. 白先勇은, 미국 내 중국소설가이자 昆曲 연출가로 유명하다. 그는 중국 대륙과 대만 및 미국을 떠돌며 살아온 인생역정을 가지고 있는 신분적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문제에서 다양하게 열린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범주에 대한 것은 아니며, 물론 그를 어떠한 범주 속에서 읽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우선 간단히 한국의 국문학계와 영문학계에서 주로 말하는 개념과 범주에 따르면 그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박인찬은 ‘아시아계 미국 소설’이라는 정의 하에 몇몇 중국계 작가들을 다루고 있는 그의 글²⁾에서, ‘아시아계 미국 소설’은 소설 속 지리적 배경이 어딘가에 따라서 작가의 관점이나 작품 해석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가가 속한 민족단위와는 관계없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인찬의 글은 일부 수궁이 가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배 이데올로기 혹은 헤게모니적 입장에서 분류한 소설의 관념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 대륙의 중문학계는 그를 ‘世界華文文學’ 작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만의 중문학계는 그를 대만 출신 중국인 작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듯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그 범주와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모더니즘적 읽기에 의한 독법과 문화적 읽기의 접근법이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가능성

2) 박인찬, 『중심인가 주변인가: 지구화 시대의 아시아계 미국소설』, (한국영어영문학회 제87차 연례학술대회 기획색션 “중심과 주변의 재구성”에서 발표된 글 인용, 2005.6), 260-278쪽.

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白先勇의 소설 『臺北人』에서의 모든 배경은 臺北이며 모든 인물들은 순전히 현재로는 臺北人이지만 소설 속 인물들은 그의 그리움과 향수로부터 발현된 태생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의 소설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가 속한 사회의 이방인으로서의 문제는 인물들의 정체성 문제만큼이나 중심된 주제로 작용하고 있다. 나는 白先勇의 소설을 분석하여 이러저러한 원인들을 상실로부터 찾았으며 이를 극복해가는 인물들의 유형을 다룬 바 있다. 고향상실, 인성상실, 지위상실, 情人상실이라는 네 가지의 상실의 원인을 가진 인물들은 자기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 회복의 형태 역시 몇 가지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자살과 죽음에 의한 부분도 정체성 회복의 한 형태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소설의 내용과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나아가 사실은 이 소설이 白先勇에 의해서 대만과 미국에서 발표된 시기의 문제와 미국의 중국계 이민자 사회에 미친 영향, 이러한 작품이 시대적으로 유효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실례들 및 만약 그러한 작용이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부각되어 나타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안점을 바탕으로 고찰함으로써 白先勇의 소설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문화적 접근의 기초단계

1) 중국문학의 세계화인가?

영국의 문화학자 안토니 이스트호프(A. Easthope)는 문학연구자들이 모더니즘적 읽기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문화연구라는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기초로

삼음과 동시에 올바른 이데올로기적인 역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인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더니즘적 읽기란 문학형식 상의 모더니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문학계도 이러한 문화적 접근 혹은 문화학적인 해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에 대한 예로 중심/주변의 정위에 대한 담론이 서서히 활기를 띠며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탈중심/주변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연구물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듯하다. 국내 중국문학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을 살펴보면 근래에 발표되는 논문들은 지역적으로도 중국 대륙을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중심으로 작용했던 다양한 요소들을 벗어나 있고, 소수의 문학, 피지배계층의 문학, 제 3세계 작가들의 문학으로 시각을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의 줄거리를 논하고 작중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연구방법은 물론 여전히 유효하지만 전위적이며 개척적인 시도를 하는 연구자들로부터 다소 멀어졌으며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찾아내고 시대적인 역할 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중문학계에서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중국인들에 의한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일은 아니다. 문단의 구성은 이민 초기인 19세기이후 20세기 초반부터 볼 수 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중국대륙에서 점차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을 발표해오고 있다. 2006년, 나는 중국 長春에서 열린 ‘第4屆世界華文文學學術大會’에 참석했으며, 당시 각기 다른 11개국에서 온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중국문학의 정의의 새로운 정립과 범주를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현장을 쫓 지켜보았다. 당시 발표된 논문 중에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국대륙의 문학에 대비되는 의미로 ‘海外華文文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었다. 더러는 ‘海外中國文學’, ‘世界中國文學’, ‘世界華文文學’ 등의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학술대회의 제목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世界華文文學’이라는 용어에 크게 동조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華文’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중화주의적 속성

과 그 용어의 배경에 대해서 한국에서 중국문학을 연구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공감하기 힘들다. 오히려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취지에서 ‘세계중국문학’을 말하는 것은 어떨까. ‘華文’의 어색함과 거부감도 없애면서 전 세계 중국인문학, 중국어문학을 통괄하는 의미로 시각전환을 하자는 의미를 담으면 어떨까. 분명한 것은 현재 논의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 분야에 적절한 용어의 정립과 용법 및 지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학계의 노력과 더불어 더욱 광범위한 범주의 사용자들로부터의 담론과 검증은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것이 나아가 어떠한 지리적,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부터 가능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 소설가, 미국 내 중국소설가라는 정의의 문제는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며 그 결과를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상이하게 보이는 이 두 개념 역시 한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명칭 구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의식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다. 우선 아시아계 미국 소설가, 혹은 미국 내 중국소설가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범주가 있고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계 미국 소설가라고 분류할 때, 그것은 지역적, 문화적으로 미국의 작가이지만 출신배경과 민족지적 구분이 아시아임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 내 중국소설가라고 했을 때는 현 거주지와 국적의 구분은 미국이지만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의 작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는 데에는 분명 어떠한 전략적인 목표가 숨어있다. 태생적인 다민족 문화이자 다인종 국가이며, 사실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종’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힘든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은 끊임없는 인종전쟁과 민족전쟁의 시한폭탄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데, 역사상 과거 한동안 패권을 거머쥐고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던 중국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그들은 오랜 세월 국가라는 기반 위에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민족들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이러한 고민은 곧 대내외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바, 각

각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작용과 전파의 도구로의 문학의 역할로 전이되었다. 중국문학의 세계화인가하는 질문에는 일종의 중국문학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체의 의도에 대한 일종의 불안한 의구심을 담고서 진행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미국 내 중국문학과 白先勇

우선 白先勇으로 대표되는 북미 지역의 중국문학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군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북미 지역 중국인 작가들에 의한 작품들은 일부 중국어와 동시에 영역되어 읽히고 있으며 중화권뿐만 아니라 서구쪽에서도 상당한 지지와 호응을 얻으며 출판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미 지역 중국문학 작품들의 초기 형식은 자전적인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 작가 중 비교적 지명도 있는 이로는 黃玉雪³⁾·湯亭亭⁴⁾·白先勇·黃俊雄·葛逸凡·葛浩文 등이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의 작품들은 미국문학에서 제 3세계와 같은 주변으로 분류되다가 1980, 90년대 무렵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조심스럽게 주류사회로 서서히 편입해 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당당하게 에스닉 문학으로 정전화되기도 하고 있다.

王琅琅이 「美國亞裔文學的話語地位和話語策略」⁵⁾에서 사용한 ‘美國亞裔文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王琅琅은 ‘美國亞裔文學’를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아시아인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

3) Jade Snow Wong, 1945년 『華女阿五』발표. 程愛民 主編, 『美國華裔文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12), 42쪽.

4) Maxin Hong Kingston, 1976년 『女勇士』(The Woman Warrior: Memoirs of a Girlhood Among Ghosts)로 1997년 미국 ‘국가인문상’을 수상했다. 程愛民 主編, 『美國華裔文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12), 43쪽.

5) 王琅琅, 「美國亞裔文學的話語地位和話語策略」, 『四川大學學報』, 2003년6기, (四川: 四川大學出版社, 2003), 80-85쪽.

지로 요약했다. 그것은 “규모가 방대하며 독자층이 넓고 미국 내 작품상을 수상한 경력이 많으며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타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들이다. 王琅琅의 말을 통해 보자면, 다시 말해 북미 지역의 중국인 문학은 지속적으로 타자화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상대되는 의미의 ‘자아’인 미국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꿈꾸어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주류사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거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발화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우뚝 서야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문화적 의미에서 보자면, 이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언급으로, 이미 중국출신 작가들을 타자화된 존재라는 전제로 판단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타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부분인데, 한 문화권에서 소외된 인종이나 민족의 적극적인 발화의지와 문화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으로 이 부분만은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그 적용을 논함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연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白先勇은 중국문학을 하는 연구자들과 앞으로 세계 속의 중국문학으로 그 연구의 범주를 넓혀갈 이들에게 있어서 낯선 이름은 아니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범주상의 문제로, 종종 그는 중국 당대 작가·대만 작가·북미 이주작가·華文文學 작가·이민자 문학 작가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이러한 범주 규정을 넘어서는 일종의 공통된 요소가 그의 작품의 의미를 다양한 방면으로 살려내고 세계인의 공통된 감수와 심상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범주와 정의가 힘들다는 것은 동시에 작가 혹은 작품이 가진 다문화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다문화적 특징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만은 아니며, 그의 대만에서의 활동과 이력 역시 순전히 ‘대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白先勇이 臺北에서 1960년 陳若曦, 歐陽子 등과 『現代文學』를 창간하였을 때만 해도 대만의 실질적인 모더니즘 문학은 아직 싹트지 않은 때였다. 창간자들은 잡지를 통해 외국의 문학회론과 사조들을 번역하여 기고하고, 서구의 모더

니즘에 고무되어 모더니즘적 창작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때 白先勇은 유복했던 집안환경과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만 문단에서 그의 문학은 귀족문학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여 대만에서 일종의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가 대학에 입학 전까지 홍콩을 포함한 중국 대륙에 있던 시간은 짧지 않았으므로 白先勇에게 당시의 중국 대륙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각인되었으며, 그 영향을 받아 1930년, 40년대의 桂林과 上海와 南京, 1950년대의 홍콩을 작품 속 인물들의 출신배경으로 등장시키고 작품 속에서 그곳들을 형상화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까지 중국 대륙 내에서 북벌과 항일전쟁, 국공내전, 그리고 대만으로의 철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이후 白先勇의 소설 속에서 작중인물들에게 시련을 주게 되는 혹은 직접적으로 臺北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는 사회적 요소들로 장치되어 있다. 이들은 작가 자신의 실제 경험과 거의 흡사하며, ‘辛亥革命’과 ‘5·4신문학운동’ 또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대만으로 이주 후 白先勇은 학문에 눈을 뜨고 본격적으로 작품 창작을 시작했다. 夏濟安이 주관한 『文學雜誌』는 白先勇이 작가로 태어나도록 하게 한 중요한 매체였으며 동시에 서양문학과 이론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그는 영문학도로서 다양한 서양이론과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던 것이다. 白先勇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주제 의식들은 다양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는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白先勇이 『臺北人』에서 창조해낸 인물들은 대만으로 이주해 이주민임에 앞서 중국인이며, 이들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白先勇에 의해 근본적으로 그가 속했던 중국 대륙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통해 창작된 것이다. 미국 이주 후 작품 창작에 더욱 열의를 쏟았던 白先勇은, 이 때 두 작품 『臺北人』과 『紐約客』를 집필했다. 두 작품은 작가가 대만을 벗어나 서양 모더니즘 사상을 흡수하고 그 기교를 배울 때 창작된 것으로 민족성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臺北人』과 『紐約客』는 기교면에서는 물론 모더니즘이라는 방식을 차용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의 다른 어떠한 작품들보다도 민족성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과 통찰을 담으려 노력한

작품들이다. 이 시기 白先勇은 미국에 유학하면서 중국 역사, 정치, 철학, 예술과 서적, 그리고 '5·4 신문학운동' 이래 다양한 작품들을 두루 섭렵한 후였다. 이때는 개인적 주관의 틀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더욱 넓은 사회생활과 역사 감각을 익힌 예술적 성숙기라 하겠다. 1963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그의 삶은 기존의 삶보다 더욱 안정되었으며, 물질적으로 과거와 같이 부유하지는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후 캘리포니아 UC Santa Barbara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었으며, 작품 창작의 소재나 작중 인물의 형상화, 작품의 배경 면에서 그의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인 격변으로부터 그를 구원해준 자유세계에 대해서 일정한 애정과 환멸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의 도미 이후의 삶은 물질적 측면에서 물론 더 나은 삶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정신적 측면에서 더욱 향수를 자극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작품 창작의 기폭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白先勇은 그 스스로를 '放逐者(쫓겨난 자/ 유랑민)'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을 소속되지 못하고 비켜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 이주한 뒤 오랜 기간 중문학과 교수로 재직해 있으면서 대만에 있을 때보다도 더욱 왕성한 창작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의문으로 일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스스로 그 자신을 '放逐者'라 부르는 데는 일정한 의식의 흐름체계가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뿌리이자 정신적 근본인 중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거나 혹은 고향을 떠나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수반되는 고통이나 상처를 견디기 힘든 그 지난함의 표출일 수도 있다. 게다가 '과연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면서 그를 길도는 인물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된다. 결국 주변을 뺄뚱 자아는 스스로 떠돌이가 되기를 자처한 듯 자기합리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白先勇의 다문화적 속성과 세계중국문학으로 나아가기 적합한 몇 가지 요소들을 아우르면서 그를 문화적 영역에서 재구성하는 일이 이제 남았다.

3. 白先勇 소설의 두 가지 접근

1) 모더니즘적 읽기와 접근

白先勇의 소설을 두고 ‘서사시적 역사서’에 비유하거나 ‘대륙에의 향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작중 인물의 형상을 연구하는 방향은 모더니즘적 읽기에 충실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문학적인 의의와 가치를 밝히며 고유하고 불면하는 어떠한 일종의 진리와 같이 인식하던 때는 이러한 텍스트 읽기가 유효했으며 훌륭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담론과 문화를 말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돌연 그러한 훌륭한 색채는 빛을 잃는 듯 보인다. 여기서는 잠시 모더니즘적 읽기를 통해 보는 白先勇의 소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편소설의 한계는 작중 인물들이 긴 여행을 떠나 스스로의 위치와 인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친절하게 보여주는 식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들이 삶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이 그 첫 번째 이유요, 작가의 서술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또한 정체성은, 주인공이 소설 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결말에 이르러서 적극적으로 그 목적인 바를 획득한 모습을 보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정체성을 말할 때, 한 존재가 비록 과거나 미래의 자신과 꼭 동일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에 대한 의문을 인식하고 이후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고거나 행위를 취하거나 하는 것 자체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바로 그런 의미로 한정시킬 수 있겠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현대정체성 이론을 구축한 에릭 에릭슨이나 정신분석가인 하인츠 리히텐슈타인 등은 정체성은 때때로 ‘진전되어 가는 형태(evolutionary configuration)’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들은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바라던 바의 성취, 자율적 개인, 모범적 인간형을 향한 긍정적이고도 발전적인

진행으로 본다. 즉 정체성은 하나의 과정이며 융통성이 있으며 복합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소설은 정체성 찾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수단이다. 달리 말하자면, 소설은 내면성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모험의 형식이며 소설내용은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영혼의 이야기이자, 모험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견디어내면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려는 영혼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진다.⁶⁾ 소설이 지니는 진행적 성격은 단지 내용적으로만 완결성을 배제할 뿐, 하나의 형식으로서 변화와 존재 사이의 하나의 안전한 유동적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이념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소설은 상태로 변하고 아울러 변화의 규범적인 존재로 변하면서 스스로를 지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소설은 ‘길은 시작되었지만 여행은 완결된⁷⁾ 형식이 된다. 白先勇의 『臺北人』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한 길목을 돌아나가고 있다.

작중 인물들은 자기정체성을 찾는 방식에서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토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토대는, 첫째, 대만으로 이주하여 고향으로부터 뿌리 뽑힌 공통된 과거를 지녔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이유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셋째, 정체성 혼란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의 단계를 꿈꾸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공산화된 고향 땅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 대륙에서는 ‘나’라는 자기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바로 그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체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공동체의 성격이 ‘나’의 성격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중국인으로서의 나’, ‘중국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진 나의 모습이 현실생활에 그대로 용해되어 있었으며, 같은 색채를 띠고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臺北로의 이주와 함께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

6) 루시앙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청하, 1982, 115쪽.

7)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반성완 역, 『小説의 理論』, 서울: 심설당, 1997, 94쪽

들 속에서 이전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나는 중국 대륙인’, ‘나는 지난 과거를 중국 대륙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인식들을 때 순간마다 해야 했던 것이다. 대만은 19세기 초부터 중국과 교류가 있어왔으나 20세기 초부터는 계속되는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원주민의 문화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니 중국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臺北人』에서 묘사된 인물들은 臺北에서 살고 있는 중국 대륙인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풍자적인 臺北인들이다. 중국 대륙인은 臺北에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臺北에 살고 있는 중국 대륙인들 가운데는 건전하고 의미 있는 현실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작가가 설정한 인물들의 삶이 곧 ‘대만 사회의 축소된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대만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가 그러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의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白先勇은 사건 전개와 인물형상 창조에 있어서, 소극적 자아를 작품 속에서 더욱 강도 높게 등장시켰던 부분에 이르면 작가 자신의 이주 경력을 다시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체성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요소들과 일치하고 있다. 당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였다. 그가 소설로 그려낸 인물들은 중국 대륙을 떠나와 대만으로 이주해 왔다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금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작가 그 자신은 미련 없이 더 나은 세상을 찾아 떠났으므로 비교적 적극적인 자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사상체계나 사교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의 삶은 적극적인 개척자로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작품을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한 바를 따라가 보면 더욱 그 사실은 분명해진다. 작가로서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사회현실을 그저 소설로 옮겨 실기만 했으리라고는 믿기 힘들다. 오히려 그는 소설을 통해 개척의지마저 상실한 臺北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려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아직은 그대로 순응하거나 약해질 때가 아니라 저항하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반사효과를 염두에 두고서 소극적 자아를 더욱 부각시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소설 속 인물들이 단순히 중국 대륙귀환을 꿈꾸는 자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실은 같은 국가 내이거나 혹은 다른 국가 간이거나 고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 뿌리 뽑힌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순간 이 세계에 속하면서도 속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白先勇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에 분명하다.

白先勇은 그의 소설 속에서 다양한 꽃을 직접적으로 여성으로 비유하거나 혹은 상징적인 매개물로 사용하여 앞서 말한 정체성, 상실, 이민자의 모습 창출 외에도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준다. 어느 한 편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극히 중국적인 꽃의 언급과 최소한 ‘~와 같은’식의 비유는 그의 의도적인 구성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옥란화, 오월화, 연꽃, 해당화, 난초, 진달래, 모란, 소심란, 자죽, 고련화 등 이름만 열거해도 다양한 이러한 꽃에 대한 묘사는 기존에 여성의 상징으로 대표되던 꽃의 심상을 좀 더 의도적으로 향수의 매개물로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작가의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작품에서 묘사된 적절하고 또한 아름다운 형용들은 또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소설 읽기에 흥미를 더해주는 점이다. 지금껏 살펴본 바, 모더니즘적 읽기는 공통적으로 텍스트의 고유한 의미를 살리는 것과 기표적 의미의 해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진전된 방식으로는 작가의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을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확장하는 것이 있다. 텍스트를 창작자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곳에 두고 그 의미를 읽어내고 구성해내는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더니즘적 읽기가 줄곧 유효하게 인정받으면서 행해진 문학읽기의 전형적인 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텍스트로부터도 어떠한 문화적 접근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문화연구를 통한 접근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엘리트문화 혹은 고급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가치판단은 우리의 일상, 특히 대중매체들 속에는 아직 남아 있지만 학계에서는 그다지 인정받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대개 문화란 단순히 정신의 객관적 표현으로 한정되지 않고, 종교적 표현에서 결혼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적 행위를 아우르는 비엘리트 집단의 세계관과도 연관된다. 발전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육되지 않은’ 계층의 문화와 비유럽 인종의 문화가 연구되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는 연구대상의 확장과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로 이어졌다. 이후 문화 연구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물론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론과 방법론을 빌려와서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

문화 연구는 인간 삶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므로 자칫 ‘모든 것을 다루면서 정작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지금껏 행해지는 문화연구의 사례들을 보면 일정한 규칙과 일반적으로 연구되는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문화현상 자체만을 연구하기보다는 어떠한 문화현상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혹은 또 인접한 다른 문화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열린 연구영역인 문화·문화연구·문화학(어떤 이름으로든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이 모든 것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문화·귀족문화·대중문화·상류문화·지역문화·세계문화·포스트모던문화·탈식민지문화·사이버문화·동성애문화·청소년문화·성인문화·음식문화·복식문화·주거문화·언어문화·독서문화 등과 같이 사회적 계층과 지정학적 성격·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특성과 애호·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생활환경 등이 모두 문화연구의 영역인 것만 같다. 『21세기 문화 키워드 100』에서는 꽃미남·오티쿠·DIY·모바일·비만과 다이어

트·성형수술·아토피·엽기·유비쿼터스·인터넷소셜·코스튬플레이·크로스오버·팝·호주제 폐지논의 등을 모두 이 시대의 문화화두로 다루고 있다. 현대는 마치 ‘문화의 시대’인 것만 같다. 모든 것이 문화가 아닌 것이 없고, 신생하거나 특수성을 띤 모든 것 역시 문화의 정통인양 버티고 있다. 물론 이렇듯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본격적인 문화연구의 궤도에 진입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연구자와 기존의 문학연구자들이 새롭게 외치고 있듯이, 문학의 사회추동의 힘이나 삶의 기본이나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힘을 인식하고서 텍스트를 읽고 독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白先勇의 소설에서 문화적 요소는 다분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이며 주제이며 그리고 소설 그 자체이다. 그의 작품 자체가 문화비평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 대만의 문단을 통해 중국어로 발표했고 다시금 미국 내에서 영어로 출판된 것이 그러하다. 그의 작품 활동은 문화적 현상인 것이다.

이스트호프가 말한 모더니즘적 읽기는 白先勇에 와서 다시금 적용될 수 있었다. 이스트호프는 “훌륭한 텍스트란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의미가 다양해야 한다. ……텍스트는 부단히 변화하는 의미 속에 존재한다.”⁸⁾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한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읽혀진다. 시대의 정전으로 받아들여졌던 문학작품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소비계층의 대두로 인해 대중문화가 범람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고급문화/대중문화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작업으로 신성화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⁹⁾ 기존의 白先勇 소설

8) 안토니 이스트호프, 임상훈 옮김,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4), 50-79쪽.

9) 그는 ‘문학대상의 해체’에서 대략 18가지의 텍스트 읽기 방법론을 1918년에 출판된 시 「황조롱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The Windhover: To Christ our Lord)」를 예로 들어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문학연구는 이 시에서 하나의 중심 둘레에 통일되어 있는 단일한 의미를 발견해내곤 했다.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해석만을 허용했던 관념에 질타를 가하며 이스트호프가 제안하는 18가지 읽기 방법론은 크게 저자 중심의 독서, 사회적 실천, 기표, 기의로 나뉜다. 이들 중에서도 그가 비교적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담론으로의 읽기지만 이는 책의 전반에 걸쳐 주장하는 담론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쓰이기는 했다. 위의 읽기 방법론들이 공통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하나의 전제가 끊임없는 변화의 장이 텍스트라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어느 정도 그가 말하는 텍스트의 정체성을 도출하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읽기는 중국 대륙에 대한 정서와 臺北에 대한 향수 등으로 점철된 주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왔다. 그의 소설 속에 표현된 중국적 서사요소들은-중국인들이 애호하는 다양한 꽃에 대한 묘사와 전통의상 및 전통 가옥 구조, 전통 습속 등-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근거들이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묘사를 통해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말은 단순히 중국적 향수를 붙잡고 앉아 추억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향수와 동양적 신비로움을 창출해내면서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토록 환영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이러한 서술기법과 언어기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여타한 감성을 조화시켜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을 이뤄내는 부분을 찾아내는 훌륭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물론 영화제작자들은 이러한 관객의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서 또한 부단히 일반적 요소와 특수한 요소들을 삽입하여 제작을 시도하고 있다. 어쩌면 작가가 소설을 창조했을 당시에는 제반 요소들을 일괄적인 기획하에 상품화시켰거나 혹은 정반대의 경우이거나 하겠지만 일단 소설이 출판되어 작가로부터 분리가 일어난 시점부터는 그 스스로 진화하고 독자와 대화하며 변화하는 독립된 개체로 생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공통된 심상과 공시적 서사소가 지역이나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비슷한 강도로 심금을 울리는 점이 바탕이 된 다음에는 작가는 물론 작품은 그 시대에 어떠한 문화적 인식의 색채를 띠게 된다. 이것이 때로는 보편적인 문화적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작품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작가와 분리되어버렸고 독자와, 혹은 문학을 통해 사회를 재편성하려는 이데올로기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체되고 조립되게 된다.

白先勇 소설의 문화적 접근은 앞서도 말했지만 어떠한 지정학적 분류나, 인종적, 민족적 분류, 혹은 시대적, 역사적 분류, 이데올로기적 분류건 간에 우선 그의 소설을 어떠한 범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 모두 접근 가능한 가정이다. 이로써 우리는 작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탐색은 물론 그리고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자기정체성의 인식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王琅琅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소위 타자화된 미국 내 중국출신 작가들은 어떠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주류 사회로의 편입이 수월치 않은 일이라는 점과 그들이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압박과 이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공통스러운 일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의 작품을 문화비평적 관점에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직접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다. 白先勇이 미국으로 이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臺北人』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가 대만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을 때 더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데 대한 가능성 있는 근거가 된다. 비 아시아권에 사는 아시아인은 홀로 있을 때마저도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경우, 미국인들 스스로도 정체성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해 오고 있다. 白先勇은 정체성의 문제가 보편화된 사회로 편입되어 스스로의 정체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

작가의 이러한 이주경력과 이주민으로서의 삶은 다분히 개인의 문제로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소설에서 반영하고 있는 인물들만의 문제만도 아니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듯 자신의 삶의 근원, 혹은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토양에 옮겨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점 더 디아스포라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이들이 디아스포라의 필요충분조건을 대역섯 가지로 주장하거나 고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이산의 문제만을 논하는 것도 가능하며, 표면적이거나 심층적인 심리상태 그리고 나아가 이로써 야기되는 문화적 현상과 영향력 등을 같이 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것은 곧 세계인들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뿌리를 잃고서 떠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과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뒤따르게 된다. 개인이 떠나온 곳과 그리고 현재 처한 곳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나는 어디에

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하는 좀 더 근원적인 고민에까지 접근하게 된다. 다가올 세상과 또한 그 세상을 살아갈 이들에게 경계의 허물어짐과 같은 국경 초월적인 문제는 다반사로서 존재하게 된다. 경계가 무너지고 통일적 집합체라든가 공동체, 그리고 소속에 대한 담론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혼란 속에서 나의 뿌리와 존재의 당위성을 찾아 스스로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소설 속 인물들의 모습은 현대인의 정체성 문제와도 단절시킬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타자화 된 여러 인물의 창조에도 주목할 만하다.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미 지배적인 주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나뉘어 주변에 존재하는 이들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또한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을 무의미하고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연구는 나아가 정체성 문제와 이민자 문제의 사회적 문제로의 도치를 통해 다시금 고찰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이민자의 모습이 전제된 중국인의 모습을 그렸던 것, 그리고 고향 향수를 담은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적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담론화 할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의 대만은 미국으로 환원될 수 있다. 臺北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곧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이주자들의 향수와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중국 대륙 출신 사람들은 미국의 중국 이민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기 힘들다.

4. 소결: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 모더니즘적 텍스트 읽기로부터 문화연구의 개념을 인식하고 텍스트를 대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학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새로운 활력을 주는 요소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화의 조류에서 자문화, 자민족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문화, 다인종을 인정하면서 가치판단을 떠나서, 문학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와 중심/주변의 논의 및 자아와 타자의 구분에 대한 일종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 더욱 유효하고 효과적인 문학연구를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더더욱 요구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핵심인 문화비평으로 나아가는 중국문학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를 든 것은 白先勇이며 그의 소설이었다. 기존에는 텍스트를 고유하고 불변한 것으로 보는 모더니즘적 읽기가 충분히 행해졌다면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에 대해서 나름의 자주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성장하고 의미가 확장되는 문학이론이라는 국면을 맞이하여야 한다.¹⁰⁾ 이스트호프가 그의 책의 제목을 두고 명령법이기도 하고 직설법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 속에서의 담론의 문학으로서의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이를 토대로 하는 다양한 가정과 전제들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시적 열정』과 『디아스포라의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周蕾는 이 두 권의 책에서 문화연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UC San Diego의 叶維廉¹¹⁾은 지난 4월 부산대학교에서의 초청세미나에서 그의 논문 『港、台現代詩의歷史位置』를 강연했다.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모더니즘 시의 재해석과 더불어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에

10) 중국의 21세기 문학을 말하면서 포스트 콜로니얼을 말할 때, 우리는 문학이 국가담론, 지역담론, 집체담론, 개인담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공통된 요소가 있음을 전제하고 이로써 성장, 변화, 확장, 발전하는 개념으로 새로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張未民, 「新世紀文學的發展特征」,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出版, 2007.1), 48-54쪽.)

11) Wai-lim, YIP(叶維廉: 1937-): 대만 시단에서 1960년대 白先勇 등과 함께 모더니즘 시 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했으며 1967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비교문학 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UC San Diego에 재직중이다. (Wai-lim, YIP, 고희렴 번역, 『타이완 홍콩 모더니즘 시의 역사적 지위』, 부산대학교 초청세미나 원고(2007.4.26)의 소개문 중)

대한 그의 사고과정 및 다중 문화 간의 인식과 연구의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문화연구의 창조적 틀과 접근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샤오메이 천의 『옥시덴탈리즘』 역시 전통적으로 중국적이며 오리엔탈리즘의 발현이라고 불리는 여러 현상과 매체들을 통해 ‘오독되고 오해된’서양의 모습을 분석하지 않았던가. 이들은 이스트호프가 주장하는 바, ‘문학에서 문화연구로’의 개념을 더한층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저작자들이다. 문화적 존재로서의 스스로를 깨닫고 자신감과 전능함을 느끼게 되지만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어떠한 것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며 타자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일종의 문화가 그 창조자에게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의 생산자가 꼭 문화의 소비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논할 때 연구자로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王景山 編, 『臺港澳暨海外華文作家辭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
- 黃德志, 「無根的飄蕩-論20世紀30年代海派作家的政治心態」,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2003年第12期, (北京: 中國人民大學, 2003.12)
- 單德興, 「華美·文學·越界:黃秀玲訪談錄」, 『中外文學』, 第36卷, 第1期,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 2007.3)
- 張誦聖, 「現代主義, 臺灣文學和全球化趨勢對文學體制的衝擊」, 『中外文學』, 第35卷, 第4期,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 2006.9)
- 李秀娟, 「族裔作家的文學自由」, 『中外文學』, 第35卷, 第1期,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 2006.6)
- 黃素卿, 「華裔離散族群意識及華裔移民認同」, 『中外文學』, 第34卷, 第9期,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 2006.2)
- 劉俊, 「白先勇研究在大陸1979-2000」, 『中外文學』, 第30卷, 第2期, (臺北: 臺大外文系, 2001.7)
- 林幸謙, 「流亡的悲愴-白先勇小說中的放逐主題」, 『國文天地』, 9卷5期, (臺灣: 1993.10)
- 林幸謙, 『生命的反思: 白先勇小說主題思想之研究』, (臺北: 臺灣政治大學), 2003. 11

- 潘亞暎, 『海外華文文學現況』,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 張未民, 「新世紀文學的發展特征」,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出版, 2007.1)
- 王德威, 「華語文學研究的進路与可能」專題研討,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出版, 2007.1)
- 朱立立, 「華入學的知識視野與華文文學研究」, 『文藝理論』2003年第2期, 北京: 中國人民大學, 2003.2
- Pai, Hsien-yung, "The Chinese Student Movement Abroad: Exiled Writers in the New World", *Modern Chinese Writers: Self-Portrayals*, M.E. Sharpe(Armonk, NY)
- Yang, Winston L.Y., "Pai Hsien-yung and Other Emigre Writers", *Modern Chinese Fiction: A Guide to Its Study and Appreciation Essays and Bibliographies*, G.K.Hall and Co.(Boston, Mass.)
- Ou-Yang Tzu, "The Fictional World of Pai Hsien-yung", *Chinese Fiction From Taiwan: Critical Perspectives*, Indiana University Press(Bloomington)
- 안토니 이스트호프, 임상훈 옮김,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4)
- 박인찬, 『중심인가 주변인가: 지구화 시대의 아시아계 미국 소설』
- 周蕾,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 시각, 섹슈얼리티, 민족지, 현대중국영화』, (서울: 이산, 2004)
- 劉麗雅, 「白先勇 小說의 남성상 연구-「臺北人」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제3집, (서울: 한국중국문학학회, 1994)

< Abstract >

It is a main stream that the conversion of literary studies is widely welcomed among scholars: literary text into cultural studies. We can not persist anymore a certain culture or ethnic group but accept multi-cultural, multi-national idea. Especially the ones who do research over literary and cultural texts represented into variety forms have to consider this 'multi' conception. Therefore literary texts should be read and re-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nd conversion of recognition: center and circumference as well as self and other. A Easthope mentioned this idea that modern literary study was founded on an opposition between the canon and its other, popular culture. With 'the death

of literature', the distinction between high and popular culture was no longer tenable, and the field of inquiry shifted from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 A. Easthope argues that this new discipline must find a methodological consensus for its analysis of canonical and popular texts. He examines the discipline of cultural studies as it comes out of literary studies. So we can bring this new research method right into Chinese literature on 21st century.

Key words: Literary Studies, Cultural Studies, Text, Self-identity